

# 수리논술의 승산 가능성?

들어가며,

다들 5월 모의고사 이후 나름의 전략과 입시의 새로운 향방을 정하며 많은 생각과 걱정이 있을 때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팀은 나름대로 수험생 시절 논술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실제로 입시에서도 논술 덕을 톡톡히 본 여러분의 선배로서, 그리고 얼마나 입시에 절실함이 많이 담기는지 이해하는 선배로서 시간을 내 몇 자 도움되는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특히 논술로 의대 입시를 희망하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담아보겠습니다.

## I. 제가 수리논술을 해도 될까요?

위 질문은 결론부터 말해 **현실에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시 원서를 쓸 때 **학생부종합으로 원하는 대학에 쓸 수 있는 극소수의 학생이 아니라면 논술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6논술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학생부종합에 큰 기대가 없는 학생이라면, **논술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은 전제로 깔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논술을 수능을 망쳤을 때의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학생이 정말 많습니다.**

장담하는데, 논술은 준비 없이 며칠 기출문제만 푼다고 잡을 수 있을만큼 만만한 시험도 아니고, 합격 확률이 낮으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겠다? 그렇게 만만하게 대할 작은 기회가 아닙니다.

상위권 대학에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무려 6번**이나 주어지는, **수능 후 펼쳐지는 제2의 본게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논술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 II. 수학을 어느 정도 해야지 가능성이 있을까요?

첫 문단에서 수리논술이 필수라고 했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될 것이,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수능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리논술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여 이쯤에서 **수리논술에 가장 적합한** 독자를 한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수학 모의고사 등급이 **3등급 아래**라면 수리논술을 벌써부터 준비할 것이 아니라, 수능에 집중할 때입니다.

**3등급 이상**은 되어야 논술에 안정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고,

**의예과 논술**의 경우 **안정적으로 1등급**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승산이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별 편차는 매우 크며 예외 사례도 있습니다.

기본 수학머리가 있으나 개념이 덜 완성되어 모의고사에서 등급이 덜 나온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활 동안 2~3등급에서 1등급으로 끌어올리는 학생들이 있고, 수능에서 2등급이 나왔지만 안정적으로 킬러문제들을 다 풀어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스스로 실력을 알 것입니다.

### III. 수리논술 준비에 얼마나 투자해야 하나요?

그럼 논술이 내게 어느정도 필요하겠다고 감이 오신 학생들은 언제부터, 얼마나 준비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할겁니다.

수리논술 준비를 시작하는 데에 심적 부담이 따르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국영수 학원 다니는 것도 벅찬데, 주 1회라도 논술 수업을 보태는 것이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지 압니다.

“

**수능 준비하느라 시간과 여력이 없어요.**

”

하지만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진짜 일주일에 단 네 시간정도 널 시간이 없나요?

제 2년간의 수험생활에 비추어 볼 때 단언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유튜브 몇 개 참으면 어렵지 않게 널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진짜 수능에 집중해야하는 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논술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9월 모의고사와 논술 원서접수를 지나며 똥줄이 타기 시작하는 때,

'논술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하나' 생각이 들고 논술 관련 검색량이 피크를 치는 때,

**이 때는 정작 논술을 잠시 내려놓고 진짜 수능 준비에 막판 스퍼트를 내야하는 때입니다.**

**논술 준비를 미루다보면 때가 정말 없습니다.**

마음을 먹은 당장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 IV. 논술은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하고, 문제도 어렵다는데...

겉먹으면 지는 겁니다.

인당 6장이나 되는 논술 원서가 뿌려지고 이들이 논술카드로 대부분 상향지원을 하면서 경쟁률은 말도 안되게 뺑뺑이 됩니다.

이 숫자에 **절대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논술 준비를 하지 않고 어디에라도 원서를 써놓기만 한 허수가 태반이거든요.

3합4 최저를 맞추지 못해 시험을 응시조차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능 후에 실제 고사장에 등장하는 학생은 얼마나 될까요?

**1/4 수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대들은 1/5, 1/6까지 결시생들이 난무**합니다.

2023년 기준 논술고사 실질경쟁률 자료 보시죠.

	최초 경쟁률	실질 경쟁률
인하대 의예과	648.3	85
중앙대 의학부	238	46.9
중앙대 약학부	126.8	6.8
경희대 약학부	205.8	48.8

물론 논술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2021년을 기점으로 많은 학교의 수리논술 문제들의 난이도가 점점 내려가고, 수능의 킬러문항과 비슷한 결로 출제를 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논술은 확실히 전보다 훨씬 해볼만한 수준**입니다.

또한 수리논술은 문제의 답만 구하면 되는 수능 수학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시험입니다.

앞으로 나올 칼럼들에서 더 다루겠지만, 논술에서는 어떻게 풀이과정을 present하는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필요한 **이음새들**을 확실하게 이용하느냐에 배점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보자마자 해야할 것들**이 어느정도 정해져있고,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테크**는 확실히 정해져있습니다.

수학적인 개념이 탄탄하게 잡혀있고 논리적으로 문제풀이를 전개하는 능력이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논술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 됩니다.

## | 1부를 맺으며

5월부터 쓴소리를 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능을 잘 볼 것 같은' 지금의 기분을 경계하십시오.**

개념만 끝나면 등급이야 금방 올릴 것 같고, 실수만 줄이면 1등급까지도 금방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랬고, 많은 고3 학생들이 이 시기에 그러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시판은 내신, 논술 그 어떤 종목보다도 가장 어려운 게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핏대를 세워가며 공부하는 N수생들과 겨루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과목을 실수 없이 통과하는 것,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반전을 기대하기 보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있는 루트**를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임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학생부종합 카드가 없는 분들에게는 논술 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러분보다 몇 년 선배로서 강조해두고 싶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논술, 이것만 알아도 문제 80%는 접근할 수 있다'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후배님들께 행운을 빕니다.